

# 발리 화산 분화...공항 폐쇄 승객 6만명 발 동동

### 어제부터 항공편 445편 결항 위험 경보...반경 10km 대피령 대규모 분화 가능성 배제못해

세계적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아궁 화산의 분화가 본격화하면서 여행객 5만9000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27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 측은 이날 오전부터 공항 운영이 일시 중단되면서 최소 445편의 이착륙 항공편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응우라라이 공항의 아이르 아사놀로현 대변인은 이로 인해 발이 묶이게 된 승객의 수가 5만9000 명에 이른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항공 당국은 28일 오전까지 최소 24시간 동안 응우라라이 공항의 운영을 중단하되, 6시간 간격으로 상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궁 화산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분화했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의 수도 포 푸르위 누그로호 대변인은 "이후에도 폭발성 분화와 반경 12km까지 들리는 약한 폭음과 함께 분화구 상공 2500~3000m까지 연기 기둥이 계속 치솟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궁 화산 곳곳에서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화산쇄설물이 빠르게 흘러내리는 라하르(화산이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인근 하천 지역에 접근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최고봉 아궁 화산이 화산재를 뿜어내고 있다. 아궁 화산의 분화가 본격화하면서 여행객 5만 9000여 명이 공항에 발이 묶였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BNPB는 현지시간으로 27일 오전 6시를 기해 아궁 화산의 경보단계를 전체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위험'으로 상향하고 분화구 주변 대피구역을 반경 6.0~7.5km에서 8~10km로 확대했다.

화산 전문가들은 당장 대규모 분화가 일어날 상황은 아니면서도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높이 3142m의 대형 화산인 아궁 화산이 1963년 분화했을 당시에는 산기슭 마을 주민 1100여 명

이 목숨을 잃고 수백 명이 다치는 참사가 벌어졌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에는 아궁 화산을 비롯, 약 130개의 활화산이 있다. /연합뉴스

## 중국군, 동북 지역서 동계 실전 훈련

북중 간 주요 무역로인 조중우의교(朝中友誼橋)가 다음달 임시 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군이 동북 지역에서 동계 실전 훈련을 실시했다.

27일 중국 국방부방과 인터넷매체 평파이(澎湃)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북부전구(戰區)는 최근 선양(瀋陽) 북부의 커얼신(科爾沁)초원 일대에서 '혹한-2017'이라는 임전 태세의 실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송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특사로써 방북했는데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한 채 귀국하고 중국 국제항공(에어차이나)가 평양행 운항을 중단하며 북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치러진 것이다.

특히 부대가 21일 훈련장에 도착한 이후 실전단계에 돌입한 25일은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송타오 부장의 '빈 손' 귀국이 확정되고 조중우의교를 내달부터 임시 폐쇄키로 한 시점이라는 점에

서 주목된다. 조중우의교는 보수를 위한 북한측의 요청으로 다음 달 임시 폐쇄된다는 중국 외교부의 설명에도, 베이징 외교가에선 근래 송 부장의 성과없는 방북에 격앙된 중국이 북한을 겨냥한 제재 조치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다만 중앙통신은 중국군의 이번 훈련이 한반도 정세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특히 겨울 혹한기에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종의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훈련 참여부대는 북부전구 육군 제78집단군 관할의 모 함성여단이다. 78집단군은 과거 '백두산 호랑이'(長白猛虎)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16집단군의 후신으로 주둔지가 지린(吉林)성 장춘(長春)시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첫 혹한기 훈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이번 훈련에 주어진 과제였다. /연합뉴스

## 美 전 합참의장 "김정은 핵무기 쓸 가능성"

### "트럼프 대북 군사옵션 보유"

마이클 멀린(사진) 미국 전 합참의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핵 능력을 갖췄게 된다면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멀린 전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북한이 향후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예전보다는 개인성이 더 크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 죽을 지경이다"라면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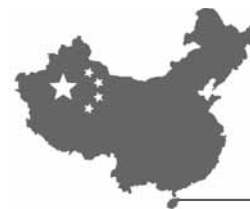
그는 "핵무기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라면서 "만약 치명적인 유산이 있고, 매우 매우 예측불가능하며, 그것을 미래를 확고히 할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면, 그는 그것을 보유하는 것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한반도 상황이 북·미 간 '말의 전쟁' 탓에 한층 고조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수사(말) 때문에 1년 전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여전히 한반도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멀린 의장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 옵션과 관련해선 "나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이(북핵) 문제에 집중했고, 신중히 옵션을 개발해 (지금)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실제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라며 "김정은은 핵 능력을 갖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억지가 없다면 그는 결국 거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109 반란 일으킨 이경업

이경업(李敬業, 636~684)은 조주 이고현 출신으로 명장 이적의 손자다. 측천무후의 전횡에 반대한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살해당했다.

원래 서씨였으나 이적이 공을 세우지 못해 성을 하사받았다. 아버지가 일찍 죽어 영공 작위를 세습하였다. 고종 사후 측천은 아들 이단을 예종으로 즉위시켜 사직을 담당하는 미주사사 직에 있었다. 684년 동생 주질 현령 이경유, 급사중 당지기, 장안주부 낙빈왕, 첨자사직 두구인 등과 양주에 모여 반란을 모의했다. 폐위된 여흥왕 중종을 복위시킬 것을 결의했다.

예종은 책봉 의식을 마친 후 다른 궁전에 연금되었고 측천이 정사를 처

측천은 격문을 보고 "누가 한 짓인가"라고 하문했다. 낙빈왕이 했다는 말을 듣자 "재상의 허물이다. 이와 같이 재주가 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였구나"고 말했다. 이경업은 죽은 태자 이현과 용모가 비슷한 자를 찾아 사람들을 속여 말하였다. "이현은 죽지 않았고 이 성안으로 도망쳐서 살고 있으며, 우리들에게 군대를 일으키라고 명령하였다." 10월에 측천은 대장군 이효일을 대총관으로 임명해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반란을 토벌토록 하였다.

반란군은 북상하느냐 아니면 남하하느냐를 결정해야 했다. 위사은은 곧장 신도 낙양을 공략하는 것이 천하를 장악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곧바로 낙양을 지향한다면 천하에서는 공의 뜻이 근왕(勤王)에 있다는 것을 알

## 7천명 군사 사망 대패...부하에 피살

리하게 되었다. "황제께서 선황을 잃은 비통함으로 인해 잠시 정사를 돌볼 수 없어 대신해 정사를 처리한다"고 발표했다. 그녀는 폐태자가 된 둘째 아들 이현을 죽임으로 내몰았다. 그는 측천의 언니 한국부인의 소생으로 알려졌다. 연호를 문명에서 광택으로 바꾸고 동도 낙양을 신도로 바꾸었다. 관직도 손질해 산서성을 문창대로 중서성을 봉각, 문하성을 난대로 바꾸었다. 이조, 호조 등 6부를 천·지·춘·하·추·동 6관으로 변경했다. 무씨 조상들을 추존하고 무씨 자제들을 기용했다. 사당 7개를 건립하고 5대 이내 조상을 모두 왕이나 왕비로 추존했다. 조카 무승사를 재상으로 무삼사를 병부상서로 승진시켰다.

그는 양주대도독이 되고 당지기와 두구인을 좌·우 장사로 삼았다. 위사은을 군사로 낙빈왕을 기실로 삼았다. 열흘 동안에 10만병을 모았다. 낙빈왕이 유명한 「무조 토벌을 위한 격문」을 써 주현에 보냈다. 격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씨는 온순하지 않고 지위도 한미하다. 일찍이 태종의 옷 갈아입는 것을 모시게 되었는데 말년에는 후일 고종이 된 이치를 음란하게 만들었다. 황후를 짓밟고 황제를 더럽혔다. 언니를 죽이고 오빠를 죽였으며 임금을 죽이고 어머니를 독살하였다. 오늘날 나라 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결국 어느 집안의 천하인가?"

게 되어 사방에서 호응할 것이다." 감찰사 설중장은 양자강 이남으로 진격해 천하를 할거하자는 주장을 폈다. "남경은 황제의 기운이 서린 땅이다. 장강은 천혜의 방어벽이 될 수 있으니 방어는 쉽고 공격은 어렵다. 먼저 강남을 취하고 북쪽으로 나아가 중원을 도모한다면 전진해도 불리할 것이 없고 후퇴해도 돌아갈 곳이 있다." 이경업은 설중장의 뜻을 채택했다. 위사은이 두구인에게 말하였다. "병사들 세력이 합쳐지면 강대하고 나누어지면 약해지는데, 이경업은 병력을 아우르지 않고 낙양을 빼앗으려고 하니 실패가 눈앞에 있다."

측천은 고종의 사촌형 이효일을 대장군으로 삼아 이경업이 내건 근왕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토벌군은 이경업의 주력군 대신 동생 이경유 쪽을 공략했다. 전쟁 경험이 없는 이경유를 초반에 격파해 반군의 위세를 크게 약화시켰다. 11월 안후이성 하에게에서 격돌했는데 겨울이라 서북풍이 강하게 불었다. 마른 갈대가 무성한 점을 이용해 토벌군은 화공 전략을 퍼대승을 거두었다. 반군 7천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강에서 익사한 자도 부지기수였다. 이경업은 양주로 되돌아가는 도중에 부하 장수에게 피살되었다. 측천은 이경업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작을 삭탈하고 성을 서씨로 되돌렸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산구 월곡동 복합스포츠타운 수익률최상 대지 3,906㎡ 건물 2,689㎡  
매매 81억 투자자가 (수영장, 키즈카페, 사우나)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사옥최적합 대로변, 병원가)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5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주상복합, 쇼핑타운적합부지)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병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52㎡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6백55만
- ★ [의료시설] 광산구 신가동 요양병원 지하층~지상4층 대지 3,000㎡ 건물 3,568㎡ 매매 56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망)

### 공·경매 교육안내

저희 공·경매전문기관인 지오옥션부동산중개법인(주)에서는 그 동안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공·경매 실전교육을 하고자 하오니 관심이 계신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11월 중순부터 매주 1회 저녁반
2. 장소 : 본 중개법인 강의실
3. 교육내용 : 이론과 실무를 겸한 실전공·경매 과정
4. 대상 : 1) 공인중개사 2) 공·경매에 관심이 있는 자 등
5. 수강료 및 교재대는 실비로 함
6. 강사
- 1) 본 법인 이사
- 2)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공·경매과정 겸임교수
-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실무교육·매수신청교육 교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본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